

◎ 구호준 수필집

당신의 그늘



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구호준 수필집

당신의 그늘



현재
출판사

홍길준
조선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父亲的影子:朝鲜文/具豪俊著.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7.8
ISBN 978-7-5389-1444-3

I. 父… II. 具… III. 随笔—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1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7)第 115028 号

书 名/ 父亲的影子
著 者/ 具豪俊
责任编辑/ 崔冬梅
责任校对/ 徐 燕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cxmz@126.com
印 刷/ 牡丹江书刊印刷厂
开 本/ 850mm × 1168mm 1/32
印 张/ 5.25
字 数/ 130 千字
版 次/ 2007 年 8 月第 1 版
印 次/ 2007 年 8 月第 1 次印刷
印 数/ 1—500 册
书 号/ ISBN 978-7-5389-1444-3(民文)
定 价/ 10.00 元

아픔은 또 다른 아픔을...

- 머리글을 대신하여

나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하나의 아픔과 동반하는 려정이였다. 아픔이 있어 고통스러웠고 고통이 있으니 절망을 해야 했다. 한번 또 한번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그 어둠들을 글에다가 담았다. 그래서 나의 글은 랑만보다는 슬픔이, 행복보다는 불행이, 빛보다는 어둠이 깔려있다.

아프게 살아야 하는 인생이였지만 나는 그 아픔에 고개 숙인적은 없다. 어찌면 새로운 아픔들이 내 마음을 노크할 때면 차라리 그 아픔을 즐기면서 향수했다고 해야 할가? 아픔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픔마저 모르고 산다는것, 그것이 진정 우리 시대의 불행이 아닐가?

지난해 어느 추운 겨울날, 한국 동양일보 조철호회장님과 마주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은적이 있다.

《구선생은 무엇때문에 글을 쓰나요?》

《저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우니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니 저는 저의 아픔과 고통, 절망을 위해 글을 씁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무엇때문에 글을 쓰는지를 생각해본적은 없었다. 어려서부터 글읽기를 즐겼고 조금

씩 자라면서 글쓰기에 취미가 생겨서 문학을 선택했을뿐이지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하여 글을 쓰는지는 단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조철호회장님의 물음에 생각없이 대답하고도 나는 내 대답에 만족할수 있었던것은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있던 내 마음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했기때문이다.

이젠 글을 쓴지도 16년 세월이 흘렀다. 16년을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왔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16년을 내 책상서랍에 누워있어 이젠 어떻게 색 바랜 명함장의 주인공을 소재로 한 수필 한편 쓰지 못한것이 내 문학생애에서의 제일 큰 아픔일것이다.

1990년 4월 30일 한 작가선생님과의 첫 만남,그것이 어찌면 오늘까지 내가 문학을 포기하지 않고 글을 쓸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화룡에서 조직한 문필 회에서의 한번의 만남,그뒤 15년을 선생님의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명함 한장 건네주면서 너는 글을 쓰면 된다던 그 한마디가 나의 생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었다.

마음으로 경모하면서도 그 마음을 글로 담을수 없는 나,그래서 나는 아픈 인생만을 살아야 하는것이 아닐가?

나는 아픔으로 글을 쓴다. 아플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그 아픔을 하나하나 그려내는것이 내 문학의 길인것이다. 나의 아픔은 나만이 감지할수 있고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나만 안고 가기 위하여 글을 쓴다.너무나 아픈 모습이여서 작품집에 사진 한장 박지 않으려고 한다.내 아픔은 나의 전매권인데 호트러진 표정 하나에서라도 행복의 미소를 짓는 이들에게 그들을 던져준다면 나는 천고의 죄인이 될것이다. 그래서 사진 한장 없는 작품집을 선택한다.

수필집 《당신의 그늘》은 16년의 아픔의 치유이며 또 다른 아픔의 싹이 될것이다.

〈추천사〉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지혜의 서 되기를

정곡 리양우 (시인, 계간 [문예춘추][시인과 육필]
[한국육필문예보존회 회장]
[한국육필문예공원 창시자])

청춘은 파릇한 시간에 살고 꿈결에 흐르는 물결에 산다.
시간속에서 청춘은 꿈을 꾸고 오늘을 지나는 길처에서
래일을 맞이한다.

행복이란 숨결처럼 넘실대는것, 희망이란 래일을 향한
몸짓, 시인이나 작가는 그런 대렬속의 나그네와 같다.

청춘을 불사르고 쓴 작품, 꿈결속에 깃든 물면체 같은
인생사, 의식주를 가리지 않고 창작에 몰두하는 생명체, 분
명코 작가는 그런 시간적 생명(사람)류(類)에 속한다.

구호준수필가는 내게 있어서 그런 인식을 주는 이미지
속에 살아 숨쉬는 글을 쓰고있다. 진지하고 내면적이고 표
상화(表象化)된 생동감을 주는 작품을 쓰는 분이라는걸 진
작부터 확인하였다.

소크라테스가 학자(學者)가 아니고 각자(覺者)였다는것
처럼 구호준은 학자다운 지식구조가 아니라 사람의 실천과
리성적 깨달음을 갖고있는 의식구조를 그려내는 작품을 잘
쓰는 수필가로 지목된다.

이 사람의 수필을 처음 대한것은 필자가 운영하는 계
간 《문예춘추》지에서의 인연이다. 구호준수필가가 작품을 보
내오고 그 작품을 읽게 된 연유에서이다. 이를 선에 올릴 만

큼 우수하고 정교한 수필을 쓴것이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가 한국에 왔다. 대면한 즉 진실하고 순수한 미래지향적인 청년이었다. 문학적 열정이 넘치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라는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한즉 이번에 수필집을 출간하게 된다니 반갑고 기대된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의 등명(燈明)이 되었으면 한다.

축하를 드리고 한국 서점가에도 선보일 날을 기다린다.

〈추천사〉

압축폴더를 클릭하면 확대되는것은 내용물이다

- 구호준의 수필집 《당신의 그늘》 출간에 즈음하여

정호원 (연변인민방송국 문학부 주임, 연변작
가협회 산문분과 주임)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한편의 좋은 도서는 자양품이자 라침판 그리고 지침서일수 있다. 애독분을 강조하는 시체의 주선률도 그렇고 또한 민족위기를 감안하는 현시점에서 해탈모식을 강구하는 와중에 한편의 도서가 미량의 스텔나마 준다면 보람찰것이 아닌가! 삶에 지쳐 부대끼거나 살길이 막막할 때 위안과 출로를 찾는 발견이 독서로부터 얻어진다면 그이상 성수가 날 희망은 따로 없으리라!

나는 구호준을 안지 몇년 된다. 그때는 간접적이었고 또한 간혹 이벤트에서 만나도 어차피 일정이 바듯해 총망히 갈라졌다. 후에 그의 작품발표가 지면을 통해 찾아서부터 점차 신진의 부상을 눈여겨보게 되었었다. 필치가 간결하고 기발한 착상을 시도하는 스펀이 못내 맘에 들었다. 나는 촉각을 살려 그의 신원을 탐지했다. 알고보니 그는 꽤 가탈을 겪고 인생 아리랑고개를 허위허위 넘는 알피니스트(alpinist)였다. 그만큼 나와 구호준씨는 어차피 경력이 근사한 면이 많고 또 현재 한 직장에서 동료로 있는 지연(紙薦)때문에서라도 그의 신작출간을 우선 박수로 축하하고 고무해야 하겠

다. 연변작가협회 산문창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호준의 수필집 《당신의 그늘》의 신간출판에 즈음하여 호함진 꽃다발을 드린다.

구호준은 현재 연변방송국 문학부 편집, 기자이다. 드라마, 소품, 산문, 평론, 시, 소설을 다재다능하게 다루는 다면수의 장기가 오늘 수필집 출간에 림하게 하지 않았나싶다. 멈춰선 자리에서 다음 스타트를 살펴보곤 즉각 비상(飛上)의 날개를 져는 몸짓이 생동하다. 방송인 앞서 문학인으로 거듭나려는 몸부림의 아름다운 결과물로 보면 더 이쁠것 같다. 독야청청 내지 군계일학의 경지를 탐내 발싸심 내지 다랑귀를 반복하는 가동은 거창하다. 항상 출류발취(出類拔萃)의 일탈을 꿈꾸고 비전을 소망하는 태동으로 인간은 성숙되고 발전하는 법이다.

압축폴더라는 말은 더는 신조어가 아니다. 컴퓨터가 지천으로 널브러지게 보급된 마이컴(my com)이라는 현시점에서 압축폴더는 아마 간편하고 축소되고 함량이 오롯하다는 광의적의미로 더 빈도를 높이나보다. 구호준씨의 작품집을 바로 이런 경위로 비기고 싶다. 물론 그의 수필 전편이 일매지게 베스트셀러나 회심작이라는것은 아니다. 그런데 작품의 명암식별은 바로 내재적인 주제 발굴과 깊이있는 철리 그리고 다분한 정감토로에 있지 않을가싶다.

인정세대는 인간의 영원한 주제이자 인류문화의 속성이다. 수필로 인연을 강구하고 돈독한 우애를 호소함은 작가의 당위성이다. 구호준의 수필은 인정을 둘러싸고 소담하면서도 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슬로 태양의 직사광을 얼비쳐 보이고 들꽃 한송이로 복옥한 향기를 풍겨주고 개울물 한줄기로 무변대해의 여음을 들려준다. 고향, 아버지, 가족의 런던성을 실감 나는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화자(話者)의 내심독백을 구구절절 토파한다.

그 육성과 육필은 인성을 강조하고 휘황세계를 지향하

는 그래프로 안겨옴에 가슴이 뭉클해난다. 인정사막과 우정
고갈이라는 그들이 짙게 드리운 속세에서 인맥을 할애하는
문풍이야말로 동질성이 반영되는 천생려질이 아닐수 없다.

2007년 7월 11일

연길에서

차 례

머리말 / 1

내 마음의 공백편지/1

어미닭과 병아리 그리고!?!/4

1원, 내 인생의 자리표/9

버리기 1, 2/12

건방진 남자/17

비오는 날의 서정/20

아침 스케치/23

당신의 풍경/25

너의 길/27

추억읽기/31

외롭지 아니하다, 너 없는 가을이라도/37

락엽에 쓴 가을 엽서/39

선물/42

인정/45

정/48

침묵읽기/54

당신의 그늘/57
화장실스케치/61
비빔밥 한그릇/63
정이 머무는 자리/66
마음을 비우며/69
꽃은 꽃으로 남아야 아름답다/71
산이 그리운 날/74
맨발 등산/76
당신과의 약속/80
울며 절하기/84
색 바랜 말 한마디, 미안합니다/87
돌팔이의원/90
마음을 다스려라/93
눈 내린 날의 추억/96
인연/99
생명/103
머리를 꺾으며/107
매니큐어를 사드릴가요/110
맞고 시리즈
 맞고 할래 그냥 할래/115
 광박을 조심해라/117
 피박/119
 고/121
 스톱/123
 고박/126
 쪽/131
 락장/133
 나가리/136

때로는 미아가 되거라/138

당신은 공주병을 앓으십니까?

가끔 나도 왕자병을 앓으렵니다/141

시골의 돌각담/145

아픔도 사랑한적이 있습니까?/148

고향역/150

내 마음의 공백편지

아침에 금방 출근했는데 접수실아저씨가 편지를 한통 가져왔다. 또 어느 편집부에서 보내온 편지겠거니 하고 무심코 받아 발신인의 주소란을 보니 생각밖에도 안도현에서 날아온 편지였다.

오랜만에 사인편지를 받고나니 애들처럼 공연히 가슴까지 설레인다.

며칠전 성인고등학교원 동학에게 학습자료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했으니 당연히 자료를 넣은 편지겠지만 문안 한마디쯤은 적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찾아오는 기쁨이었다.

헌데 정작 편지를 뜯어보는 순간 나는 돌이 될수밖에. 자료만 달랑 넣은 공백편지.

도무지 믿을수 없어 몇번이고 다시 훑었지만 분명 인사말 한마디 없는 편지였다.

빈봉투를 손에 들고 까아맴게 서있던 나는 흘러버린 추억 한조각을 주어들었다.

3학년이고 11살이었으니깐 지금부터 꼭 18년전.

그때 학교에서는 중뿔나게 편지쓰기라는것을 배워주었다. 물론 격식같은것을 배우는데까지는 좋았지만 정작 배우고 나니 편지를 쓰고 회신을 받아오라는 숙제가 골치거리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집은 꽤지게 가난했고 그래서 명절이나 부모님 생일에도 문턱에는 먼지만 두툼히 쌓였을뿐 드나드는 친척 하나 없었다.

홀로 앉아 끄끙 골머리를 앓는데 문득 언젠가 왕청에 고모사촌형이 있다고 하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아버지를 졸라 주소를 적었지만 정작 편지를 쓰려니 어떻게 썼으면 좋을지 좀처럼 생각나지 않았다. 하긴 11살이 되도록 코빼기도 보지 못한 형에게 편지를 쓴다니 웃겨도 되게 웃기는 노릇이었다. 한동안 끙끙 갑자르다가 인사말이요 뭐요 하는건 아예 생략해버리고 학교에서 편지쓰기를 하니 회신을 보내달라는 말만 몇글자 적어보냈다. 내게는 편지 쓰는 격식따위보다도 회신을 받는 일이 급선무였던것이다.

편지를 써서 달포쯤 지나자 선생님은 편지 몇통을 들고 들어와 나누어주셨다. 그속에는 사촌형이 보내온 편지도 있는지라 나는 펴듯이 기뻐다.

허나 정작 봉투를 뜯었을 때 속지 없는 빈봉투가 나를 조롱할줄이야?

일은 거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편지 받은 애들더러 한사람씩 일어나 편지를 읽으라는것이였다.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려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한동안 바장대다가 좋은 꾀를 떠올렸다.

내 차례가 오자 나는 금방 봉투에 찢어넣었던 필기장을 꺼내들고 천연스레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애들이 읽던 편지를 모방하면서 책에서 본 글줄들을 잡아넣느라 떠듬거리던것이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줄줄 내리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편지를 끝맺아야겠는데 그놈의 결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선생님은 마침내 내결에 다가왔고 나는 그만 쥐구멍을 찾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속지없는 공백편지, 그것이 내 인생에 최초로 받은 편지였다.

그때부터였을까? 허위가 아닌 진실속에서 살아야 함을 깨달은것은.

그때 그 일들은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긴 여운으로 남았다.어쨌든 그래서 보다 확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문학이란걸 선택했던것이 아닐까.

허나 이젠 내 나름대로의 진실속에서 살고있다는 확신을 갖고있을 때 공백편지가 날아들다니.

공백편지를 들고 내가 걸어온 어제를 돌아보며 나는 결국 슬픈 착각속에서 살아왔음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다.

문학을 선택하여 10여년, 이 10여년간 책과 원고지와만 씨름하면서 세상과는 담을 쌓아버린 내게 어찌 사랑이 있었으랴? 사랑을 준적도 받은적도 없는 내게서는 우정도 런던도 운운할수 없다.

18년전, 공백편지를 받았을 때에는 울면서 찢어버렸지만 이젠 울 때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닌 텅빈 가슴의 흑점을 비춰주는 사랑의 거울이기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만이 행복이 존재한다.때늦은 후회일지라도 이제부터는 비여가는 가슴에 사랑을 담으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노라면 내 인생의 공백편지도 종지부를 찍을거고.

그래서 래일부터는 공백편지가 아닌 짙은 편지들을 써볼 생각이다. 진정, 내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어미닭과 병아리 그리고!?

오랜만에 고향집 뜰에 들어서니 닭들이 한마당 가득 오구작작 떠들며 정답게 나를 맞아주었다. 털이 보시시한 솜뭉치 같은 갓 까난 병아리, 주먹만큼 자란 중병아리, 항아리만큼한 어미닭들...

시름없이 먹이를 쫓는 크고작은 닭들을 보니 동년에라도 돌아간듯 마음은 감미롭기만 했다.

《앗!》

황홀경에 도취되었던 나는 저도 몰래 비명을 질렀다.

마당 한구석, 어미닭의 날개밑에서 함께 먹이를 쫓던 갓 까난 병아리 한마리가 굴앞에 누워 한창 별쪼임을 하는 텃석개앞으로 쫓드르 달려가는것이였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금방 까난듯 털이 보시시한 고놈은 곧 닥쳐올 위험도 모르고 개앞으로 달려갔다.

이제 개가 입만 벌리면 병아리는 털 한대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 아슬아슬한 순간 어미닭은 털을 곤두세우고 개에게 와락 덮쳐들었다.

이발을 사려물고 오르렁거리는 개에게 어미닭은 두려움없이 덮쳤다.

한번, 두번, 세번... 어미닭의 드센 공격에 개는 끝내 짹